광주시, 에너지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건립

남구 첨단산단에 227억원 들여 지상 4층·연면적 5220㎡규모
에너지산업 인프라 활용한 융복합단지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광주시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본격화한다.

광주시는 지난 31일 남구 도시첨단 국가산업단지에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건립에 들어갔다. 광주시 공공건축물 최초 에너지자립률 100%의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예비 인증도 받았다.

착공식에는 문영훈 광주시장 권한대행, 김용집 시의회 의장, 윤영덕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 지역 대학 총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전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에너지산업과 연관 산업간 집적·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한 곳으로, 2018년 6월 시행한 에너지융복합단지법에 따라 2019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국 최초로 지정됐다.

광주·전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면적만 남구 도시첨단산단 및 에너지밸리 일반산단, 평동산단(1~3차) 등을 포함해 총 18.92㎢에 이른다.

2023년 12월 완공 예정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는 총 사업비 227억원을 들여 연면적 5220㎡, 지하1층~지상4층 규모로 신축된다.

종합지원센터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에너지기업의 연구개발부터 기술사업화까지 단계별·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해 에너지 스타트·스케일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실증-사업화의 선순환 시너지를 창출하는 등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허브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영훈 광주시장 권한대행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건립으로 에너지 관련 신생기업을 포함한 중소·벤처기업의 체계적인 기술사업화 성장기반을 마련했다"며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와 에너지밸리에 집적화된 에너지 공기업, 연구기관, 지역 대학과 협력해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에너지신산업 허브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문영훈(왼쪽 여섯번째) 광주시장 권한대행이 지난 31일 오후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 열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착공식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함께 착공 퍼포먼스를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전국 최초 민·관 통합 드론운용단 발족

광주시는 지난 31일 시청 무등홀에서 전국 최초로 민간드론운용단 발대식을 갖고 봄철 산불 등 재난예방과 시민안전 활동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관·군·경 통합드론 운영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행정기관·민간 등이 보유한 드론을 광주시 재난안전종합상황실에서 통합운영하고 재난관리 등에 활용 중이다.

민간드론운용단은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광주시 관내에서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간·행정기관·군·경찰이 보유한 드론을 재난상황 실시간 모니터링과 복구대응 지원활동 등에 통합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박남언 광주시 시민안전실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족한 광주 민·관 통합드론운용단이 향후 운용훈련과 실전참여를 통해 재난상황의 종합컨트롤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시민권익위 시민제안 4건 정책권고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1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다목적실에서 제32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시민 제안에 대한 정책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바로소통광주'를 통해 접수된 10개의 시민 제안을 집중 논의하고 이중 복합쇼핑몰 공론화 요구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문제 개선, 자원봉사 인센티브 확대, 광천동 주상복합아파트 높이 하향 요구 등 4건을 광주시에 권고했다.

'복합쇼핑몰 공론화 요구'에 대해서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형태, 규모, 콘텐츠 등)에 대해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연령·성별 등 다양한 시민 의견 수렴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문제 개선' 제안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택가 거주민 등을 위해 공영·공유 주차장을 확보하고, 각 지역 여건에 맞는 단속시간대 탄력적 운영방안을 광주시·자치구·경찰청·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모색할 것 등을 권고했다.

'자원봉사 인센티브 확대' 제안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할인가맹점 현행화 및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해 광주상생카드를 지급하는 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광천동 주상복합아파트 높이 하향 요구' 제안에 대해서는 지역·권역별 특성에 맞는 건축물의 높이 관리방안을 마련하되, 건축물 높이관리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검토해 2040 광주도시경관계획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정책 개선을 권고받은 부서는 30일 이내에 개선 내용을 담은 실행계획을 수립해 시민권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추진사항은 '바로소통광주'에 투명하게 공개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전남에 설립해야"

광전연구원·교수·전문가 보고회

대한민국 음식문화의 중심인 남도음식을 후세에 알리고 계승·발전시킬 국립남도음식진흥원을 전남에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남도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에 대비한 자체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연구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진흥원 설립 논리 발굴과 유치 전략 수립에 집중했다.

전남도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음식·관광 전문가, 전통식품 명인, 용역업체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창현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의 보고에 이어 질의응답 및 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문 연구위원은 소멸했거나 잊힌 남도음식의 기록보전과 계승발전을 위한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의 타당성을 비롯해 진흥원 비전, 운영 구상안 등을 발표했다.

토론에서 이건철 전남관광재단 대표이사 등 참석자들은 "남도음식 등 향토음식은 우리 고유의 역사성과 민족성을 나타내는 소중한 문화유산임에도, 체계적 연구개발 부족으로 전통성과 가치가 점차 퇴색하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향토음식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조사와 기록 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남도는 육지 면적 1만2348㎢(전국 3위), 해양 면적 2만6450㎢(전국 1위)로 전국에서 가장 넓은 총 3만8798㎢의 면적을 갖고 있어, 다양한 향토음식이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다. 농수산물 생산량, 지리적 표시제(159개소 중 22개소), 대한민국 전통식품 명인 지정(81명 중 17명) 등이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자타가 공인한 한식의 본고장이자, 향토색 짙은 음식문화를 갖추고 있는데도 이를 기록해 보전·발전시킬 전문 연구기관은 없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친환경 개체굴 고부가가치 수출품 육성

172억 투입 생산기반 확대
2025년 600억 소득 기대

전남도가 최근 새 고부가가치 양식 품종으로 각광받는 개체굴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172억원을 들여 양식기반시설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는 2025년 개체굴 어가 소득 6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체굴은 맛과 향이 뛰어나고 무기질 영양분이 풍부해 현재 일반적인 형태로 양식하는 연승수하식 덩이굴보다 5~10배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전남지역 연간 생산량 150t 전량을 중국, 대만, 홍콩에 수출하고 있다.

하지만 개체굴 양식은 초기 시설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전남도는 172억원을 들여 50개소의 친환경개체굴 양식장 시설을 지원하고, 현재 43ha의 개체굴 양식장을 2025년까지 500ha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업어가, 귀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개체굴 종자 배양 등 양식기술 교육을 확대하는 등 전문 기술 습득도 지원한다. 개체굴 양식장이 밀집한 지역을 미국 식품의약국(FDA) 수출용 패류 생산 지정해역으로 관리해 수출도 늘릴 계획이다.

개체굴은 껍질을 벗기는 박피작업이 필요 없어 어촌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으로 인기가 높다.

양식 과정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량도 현저히 줄어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효과도 뛰어나 환경친화적 양식이 가능하다.

전남도 관계자는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고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 개체굴이 전남 양식어가의 새 소득원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5년부터 매년 5000t 이상을 생산, 600억원의 어가소득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